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7호> 2019년 6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오이타현 소식>

###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티켓 판매 시작



9월 20일에 개막하는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오이타에서는 3연패를 노리는 뉴질랜드, 지난 대회 준우승을 차지한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최강의 팀을 뽑는 식스 네이션스에서 우승한 웨일스 전을 포함한 예선전 3 경기와 준준결승 2 경기를 총 다섯 경기가 펼쳐집니다.

현재 공식 티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일생에 단 한번의 감동을 오이타의 경기장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공식 티켓 사이트 : [tickets.rugbyworldcup.com](http://tickets.rugbyworldcup.com)

#### \*럭비 월드컵 2019 일본 대회 오이타 개최 시험 일정

- 10월 2일 (수) 19:15 뉴질랜드 vs 캐나다
- 10월 5일 (토) 14:15 오스트레일리아 vs 우루과이
- 10월 9일 (수) 18:45 웨일스 vs 피지
- 10월 19일 (토) 16:15 준준결승1 예선C 1위 vs 예선D 2위
- 10월 20일 (일) 16:15 준준결승3 예선D 1위 vs 예선C 2위

공원 ▶ 오이타 스포츠 종합경기장



## <다케타시 소식>



What`s up, OITA! 한국어판 제32호(2018.11)부터 현내 각 시정촌의 소식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츠쿠미시에 이어 이번 호는 다케타시로부터 온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 오카성터

다케타시가 자랑하는 오카성터가 지난 5월 3일 NHK에서 방송된 ‘당신도 꼭 가고싶어지는 일본 최고의 성 스페셜 제 3탄’에 선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의 ‘일본 성 랭킹 2018’에서 종합 5위, 성터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해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또 작곡가 타키 렌타로(瀧 廉太郎)가 어릴적 다케타시 성하마을에 살면서 오카성터에서 자주 놀았다고 전하며, 명곡 ‘형성의 달’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도 알려져있습니다. 오카성터에서는 쿠쥬연산과 소보산계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벚꽃, 단풍의 계절은 물론 신록의 계절에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많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다케타는 국도 442호 길에 있으며, 갓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메뉴가 호평을 받고있는 레스토랑과 지역 특산품 및 농산 가공품을 판매하는 직판장도 있습니다. 또 1월부터 5월까지의 딸기 따기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 8:30 ~ 17:30

▶ 미치노에키 다케타



<다케타시 상공관광과>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37호> 2019년 6월 발행

## 오이타 100% 즐기기! 츠쿠미 이루카지마



- ▶ 입장료 : 어른 1,000엔, 소인, 600엔  
유아 500엔 (유료 체험 별도)
- ▶ 영업시간 : 10:00~16:00
- ▶ 휴무기간 : 1월 중순~2월 중순
- ▶ 돌고래쇼 : 11:00, 13:00, 15:00

돌고래와 사람과의 교감을 테마로한 ‘츠크미 이루카지마’는 2011년 4월, 오이타시의 수족관 ‘우미타마고’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마린 팔래스와 츠크미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체험형 시설입니다.

요우라 반도에 위치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츠크미 이루카지마’는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는 퍼포먼스 존과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는 교류 체험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존에서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돌고래 쇼가 하루에 3번씩 펼쳐집니다. 귀여운 돌고래들이 트레이너와의 찰떡 호흡을 자랑하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놀라운 점프력과 각종 묘기에 매료되어 준비된 프로그램을 관람하다보면 10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쉬움을 달래주듯 돌고래 쇼가 끝나면 함께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할 수 있는 체험이 이어집니다. 교류 체험 존은 돌고래에게 먹이 주기, 같이 헤엄치기 등 기존의 수족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은 보트를 타고 도는 돌고래 워칭을 하면서 공을 가지고 노는 똑똑한 돌고래의 모습도 엿볼 수 있고 짓궂은 돌고래의 장난으로 물이 튀 때마다 느껴지는 시원함은 여름철 무더위를 잊게 만들어줍니다.

‘츠크미 이루카지마’에는 바다표범, 수달, 펭귄 등 바다 동물도 만날 수 있으며, 낚시 등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체험도 가득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방학엔 돌고래와 자연과 함께하는 ‘츠크미 이루카지마’에서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어보시는건 어떨까요?

일광욕하는 3마리의 바다 표범도 만날 수 있어요!



먹이를 던지면 고등어, 전갱이, 방어들이 몰려와요!



5m는 거뜰히 넘는 돌고래의 놀라운 점프력!!



온난한 기후에서도 잘 지내는 마젤란 펭귄이에요!



특산물 굴로 유명한 츠크미시는 석회암도 풍부하여 예로부터 시멘트 공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시멘트 공장과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파이프가 눈에 띕니다.

‘츠크미 이루카지마’에 있는 매점 ‘츠크미 마르쉐’에는 이런 지역 특성을 살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명물이라는 시멘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시멘트 색을 띄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으며 어떤 맛일지 궁금증을 유발하는데, 알고보면 평범한 우

유맛으로 회색빛깔을 띤 시멘트 색의 정체는 해바라기 씨의 분말이라고 합니다. 굴을 통째로 사용한 굴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시멘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믹스 버전은 이 곳에서밖에 맛 볼 수 없어 인기라고 합니다.

